



주안긴급구호단 구마모토 지진 현장 방문

지난 4월 14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구마모토(熊本)시에 진도 7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1,400여회나 이어진 잇단 강진과 여진의 직접 타격으로 49명이 사망했고,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1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많은 주택이 붕괴되고 단수, 정전 등의 피해를 입어 대피소로 거처를 옮긴 이재민의 수가 183,882명까지 달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하는 구마모토의 시민이 1만명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6일 주안복지재단의 주안긴급구호단(JET, Juan Emergency-aid Team)이 방문하여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구마모토 주민들을 방문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에는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가 함께 하여 구마모토를 섬기는 지역 교회들까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구마모토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재일교포 2세인 김성호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로 이번 지진으로 교회가 눈에 띄게 손상된 곳은 없으나, 강단에 세워져있던 스피커가 쓰러져서 깨지고 책이 가득한 책장이 넘어질 정도로 교회가 심하게 흔들려, 현재 일본 정부에서 건물의 안전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 교회의 출입구에는 노란색 표지를 해 두었는데(구마모토 시내에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들은 일본 정부에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서 빨간색은 출입금지, 노란색은 주의, 초록색은 안전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

니다.), 이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주의 표시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구마모토 복음주의 루터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진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곳은 아니지만, 지진이 일어난 후 지역주민들에게 대피소로 개방하여 현재도 5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본당을 (대부분 믿지 않는) 지역주민들에게 대피소로 내어준 후 교인들은 주일이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는 일본인 고이즈미 모토이 목사님은 담담하



게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교인들이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피난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데 구마모토에 있는 여러 피난소 가운데 가장 밥이 맛있다고 자랑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구마모토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대피했었고, 현재도 약 1,5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마모토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구마모토 체육관을 찾아가는 길에서 본 거리의 풍경은 이번 지진이 얼마나 지역사회를 파괴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상가와 무너져내린 가옥들이 수도 없이 버려져 있었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며칠 동안은 구마모토 체육관 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체육관 밖에 있는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텐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임시 거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체육관 앞의 공터에 깔려있는 아스팔트는 마치 일부러 만든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솟거나 꺼져있었고,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거대한 피난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체육관의 입구에는 통신회사에서 지원하는 통신 서비스 지원과 노약자들을 위한 간단한 건강검진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복도와 방들은 피난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가 박스와 담요 등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방문했을 당시에는 대부분 노인들만이 대피소에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직장으로 출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진으로 일상의 삶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곳곳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려는 일본인들의 삶의 자세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체육관으로 나서는 길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있었습니다. 함께 한 선교사님이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며 꼭 한국에 가서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

◎ 쓰레기, 담배꽂초 ◎ (음식물 등의) 날 것 ◎ 꿈과 희망“
지진이라는 커다란 자연재해 앞에서도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이어가려는 구마모토 시민들의 모습과 함께 이들을 섬기는 구마모토 지역 교회들의 노력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